

학과장님 인사말

'추억하는 삶'



남기호 교수님

제주대 철학과 학우 여러분, 『제주소피아』 제17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쌓아 온 학문적 노력과 든든한 우애의 활동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 소중한 글들로 모여진 것에 대해 깊은 찬사와 넉넉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욱이 제주소피아의 이번 주제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난 일들을 좋은 기억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삶의 더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추억(追憶)은 옛 일을 돌이켜 현재와 이어주는(追) 기억(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억은 과거에 언뜻 보았던 것을 망각으로부터 불현듯 다시 떠올리는 상기(想起)도 아니며, 습득한 지식을 어느 때고 꺼내 쓸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저장해 놓고 있

학과장님 인사말: 추억하는 삶 ■

는 기억(記憶)과도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억은 현재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과거의 일이나 생각을 진지하게 떠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일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즐기거나 지내버리면 추억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현재를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반성적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의 추억이 쌓여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각했던 것이 남겨진 내 여생(餘生)과의 일관성 속에서 이해될 때 나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현재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추억이 있으려면 먼저 추억할만한 과거의 활동들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은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의미 있게 떠올릴만한 많은 활동들을 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활동들이 현재의 의미 있는 활동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억을 주제로 이렇게 많은 성찰의 글들이 모이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매 순간은 곧바로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미래의 의미 있는 추억을 위해 지금의 한 순간 한 순간을 아낌없이 사유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이 미래에 돌아켜보게 될 추억에는 많은 지혜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구차한 말들로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노년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추억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심까지 저버리며 성공만을 위해 살아온 인간의 말년은 늘 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특히 변명만 일삼는 노년의 권세자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키케로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야망과 투쟁과 경쟁 속이라도 젊은 시절 자신이 이룩한 선(善)이 많다면 노년의 결실이란 이런 선에 대해 회상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주

■ 제주소피아 ‘추억’의 시작

어린 수명이 짧다 해도 이 선에 대해 관조하며 명예롭게 살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반성하고 관조하는 생동한 활동성으로 이어진다면, 노년의 추억은 그러한 활동성을 관조하는 인생의 지혜로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가늠하기도 어려운 먼 미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추억하며 세상의 빛이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의미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 회의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난 일들을 추억하며 지금의 의미를 추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하십시오. 어느 직업을 가진들 어떠한 직장에 다닐들 그 삶이 자신 고유의 의미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변명할 거리가 많은 노년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 지난 한 해를 추억하듯이, 그리고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교훈을 조금씩 쌓아가듯이 앞으로도 늘 이렇게 추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삶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간에 노년의 지혜로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